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③ 돈황에서 찾은 불교신앙 2

전란 중에 이상세계를 꿈꾸다

막고굴 초기에 해당되는 4~6세기 경 만들어진 굴실의 숫자는 후대에 비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이곳이 서역과 중국을 잇는 중요교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에 초기에 중국으로 전해지는 불교의 흐름을 살피기에 충분하다.

축법호가 떠난 뒤, 낙준은 명사산 자락에 중국이 자랑하는 막고굴을 파기 시작했다. 인도나 실크로드 지역에서는 석굴에 탑이나 불상을 안치한 차이티아형 석굴과 승려들이 머무르는 비하라형 석굴을 같이 판다. 실크로드를 거처며 이러한 전통은 중국 땅까지 전해지지만 돈황을 끝으로 사라지게 된다. 비하라에서는 승려들이 주로 선정에 드는 명상을

초기 석굴 중 최고는 5세기 초 북량(北凉: 397~439년) 시기에 세워진 교각미륵보살상이다. 다리가 X자로 꼬여 인상적인 의자에 앉아 있는 이 보살상은 미륵보살을 새겨 놓은 것이다. 교각상은 호좌(胡坐)라고도 하는데, 책상다리 그대로 의자에 걸터앉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풍습은 호(胡)라는 말대로 서역의 풍습에서 유래한 것이다.

도솔정도에 가기 위한 그들의 염원이 아로 새겨져 있는 이 보살상의 옷자락과 얼굴은 동아시아의 모습이 아닌 서역과 인도의 불상을 닮았다. 이러한 서역풍의 교각미륵상 앞에서 사람들은 도솔왕생의 염원을 밝혔다.

중국 초기에는 이런 신앙의 습관이 막고굴에 주로 나타난다. 중국인들은 도솔천을 이상향으로 그리고 도솔왕생을 바라는 신앙이 발달했다. 입고 있는 옷이 서역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 그 속에 내재된 신앙은 매우 중국적이다.

<묘법연화경(妙法華經)> '보현보살권발품(普賢菩薩勸發品)'에는 "만일 받아 지니고 읽고 외고 뜻을 해설하면 이 사람은 목숨이 마칠 때에 천불(千佛)이 손을 내밀 것이다. 그러면 두렵지도 않고 악취에 떨어지지도 않아 곧 도솔천의 미륵보살 계신 곳으로 갈 것이다. 그곳의 미륵보살은 30여의 대보살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

중국 불교의 초기에는 석가모니 불과 미륵보살(또는 미륵불)은 상당히 유행했다. 이러한 미륵에 대한 신앙은 <법화경>의 중심으로 유행하게 됐다. 당시 중국의 북쪽 지역은 짧은 기간 동안 왕조가 세워지고 망하기를 반복하던 5호 16국 시대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혼란함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정도로 구현하고자 과거와 현재 미래의 부처에게 예불했다.

미륵상은 단순하게 죽어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닌, 현실의 기반 위에서 이상세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들의 바람이 표현된 것이다.

중국의 기반은 현실에 둔다. 그래서 중국으로 전래된 종교들은 중국의 심상과 부합하게 되면서 현실적인 종교로 거듭났다. 이러한 현실을 잘 나타내는 것이 275년 굴의 교각미륵보살상이다. 당시 그들은 <법화경>의 미륵이 그토록 찾던 정도로 보았던 것이다.

문무왕(사)한국미술사연구소 선임연구원



돈황막고굴 275년굴 본존미륵보살교각상(북량시대). 두 다리를 교차한 모습이 무척이나 이채롭다. 막고굴을 대표하는 보살상으로 서역의 모습이 중국으로 들어와 변하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대륙의 문화> 3권, 한국언론자료간행회, p.75에서 전재

하거나, 중정이라고 불리는 공간을 뒤 공동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통은 인도적인 수행풍토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 또 이런 수행과 신앙이 결합된 것이 중국에 들어온 초기불교의 모습이다.

하지만 중국 내륙으로 오게 되면서 승려들의 거주처나 수행처로서 사용된 비하라형 석굴이 사라진다. 하지만 돈황에는 비하라형 석굴이 남아 있다. 275년 굴은 불교의 중요한 수행인 선정(禪定)을 행하던 승방으로, 초기 수행의 단면을 보게 해준다.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48 태안사 오르는 길

시원한 비가 다져지고 움츠렸던 숲이 다시 일어났다. 매미부터 하나 둘 목청을 돋우고, 여기저기서 새 소리가 튀었다. 태안사 오르는 길이다.

동구에서부터 스님은 걷고 있었다. 절까지 이어진 숲길은 연료하신 스님의 걸음으로 걷기에는 조금 멀다 싶어 차를 세워 스님을 모실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차가 스님 가까이 다가 서는데도 스님은 차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가던 길만 밟아갈 뿐이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더 이상 차를 몰 수 없었다. 걷고 있는 스님 앞으로 차를 몰 수가 없었다. 차를 세우고 비에 젖은 숲길위로 걸어 들어갔다. 절에서 일을 다 보고 절을 나설 때쯤 스님을 다시 만났다. 스님은 여전히 걷고 계셨다.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10도 제보행수미풍동음중장엄

불설아미타경에 나오는 이 삽화는 극락세계를 장엄하고 있는 보수(寶樹)에 대한 설명이다. 미풍이 불어 모든 보수 및 보라망(寶羅網)을 움직이면 미묘한 소리를 낸다는 본문을 판각한 장면이다.

세 그루의 보수는 각기 망으로 쌓여 있으며, 나무 주위에는 보수에서 흘러나오는 미묘한 소리를 나타낸 듯 선들이 후광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일부 잎들은 바람에 날려가고 있다. 이 도상은 목판 원판 6번째의 후반부 1/2에서 7번째의 전반부 1/2 이상까지 이어지며, 제 4도에서 10도까지는 칠보행수, 연꽃, 누각, 연꽃, 음악, 꽃, 새, 그리고 나무의 장엄함을 묘사하여 정도의 장엄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사리불아, 극락세계에는 미풍이 불어와 보배 나무와 보배 그물을 흔들면 마치 백 천 가지 음악이 일시에 울리는 것과 같으니라.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누구나 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불법을 생각하고 불제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니라. 사리불아, 극락세계는 참으로 이러한 헤아릴 수 없는 공덕과 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舍利佛 彼佛國土 微風 諸寶行樹 及寶羅網 出微妙音 譬如百千種樂 同時俱作 聞是音者 自然皆生

念佛念法念僧之心 舍利佛 其佛國土 成就如是功德莊嚴)

극락세계에는 약간의 바람이 불어도 보석으로 장식된 가로수와 나무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데 그것은 마치 백 천 가지 악기가 합주하는 것과 같으며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모두 저절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며 스님들을 생각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다.

세상의 소리가 조화롭게 되어 관현악단이 울려 퍼지듯이 평화와 화합의 소리가 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즐겁고 황홀한 이야기인가. 이와 같은 세계가 열려 있으니, 바로 극락세계요. 극락에는 이와 같은 공덕 장엄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 말씀을 믿고 극락세계에 태어나 이 평화롭고 안전한 소리를 듣고 저절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고 선지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다시 한번 극락이 그리워진다.

극락세계의 모든 장엄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으니 이 몸을 바꾸

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몸을 바꾸지 않고도 지금 현실에서도 극락의 장엄함을 경험할 수 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 낸다. 천 갈래 만 갈래로 흩어지고 찢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관현악단의 합주소리와 같이 화합하고 조화로운 소리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마음인 것이다. 이러한 마음 작용에 의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바로 극락의 장엄함이 관현악단의 합주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정토로 건설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부처님의 마음의 주인공이 되는 수행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 정토를 건설해야 할 때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교관화불박물관 관장)



교관화불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중 제10도제보행수미풍동음중장엄(諸寶行樹微風動音衆莊嚴). 덕주사판, 1572년 간행, 반권(半郭) 28.2×21.0cm.

12월 1,100원 (200부 이상) 정성드려 만든 2011년 불교달력. 주문하시면 최저할인가격으로 보답합니다.

불서보급 37년 전통과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불교달력과 불교용품을 직접 생산, 판매합니다. 달력 1~40호 [국6절·12절·미니·다이어리·한지·탁상] www.buddhashopping.com

달력규격	달력할인가
국6절(대) 규격:30.5×31.0cm	1,900원 1,400원(200부이상)
12절 규격:25.8×26.5cm	1,600원 1,100원(200부이상)
차걸이 규격: 9.0×15.5cm	650원 450원(200부이상)
미니 규격: 8.9× 9.5cm	800원 450원(200부이상)
다이어리 규격: 9.5×13.4cm	1,000원 650원(200부이상)
한지 규격:30.0×45.5cm	2,200원 1,700원(100부이상)
탁상 규격:26.2×19.0cm	2,700원 2,200원(100부이상)

대량주문시 사전 전화 문의 바랍니다~ 달력카드로그, 용품카드로그가 필요하신분은 대표번호로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동진기획 · 붓다쇼핑 검색창에 [붓다쇼핑]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대표번호 : (051)515-8888 H·P : 011-554-2988, 011-879-0889
 Tel : (051)515-2988, 555-1087, 508-9377~8, 070-7425-0518
 Fax : (051)508-0101 E-mail : dongjin8888@naver.com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상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편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본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이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연불상!** 02)2004-8216
 농협 053-41-289082
 5년내불교신문사